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月刊

10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2008년 10월 1일

발행·편집·인쇄인 趙昌化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 02)732-4797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02)2001-7621

E-mail: kjcl405@hanmail.net

Fax 02)730-1270

2008년 8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라 2013

SINCE 1977

www.kjclub.or.kr

제 271호

한국언론 고함만 지르는 응원단 같다

元老에게 듣는다

權五琦

·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주필, 대표이사 사장
· 전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정리=崔熙助 (본보 편집위원·충북대 초빙교수)



權五琦 전 동아일보 사장은 "신문기자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로서 '공중에게 정보를 잘 제공하는(well informed public)' 언론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은 자신도 잘 모르면서 고함만 질러대며 선수는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인 무정부 상태와 같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언론정책과 관련, 아무 것도 안하는 게 최선이며 언론이 잘 못하는 걸 바로 잡는 감시역할만 하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기업이 언론사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나라 현실을 부조리라고 비판했다. 언론은 남의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권 전 사장은 대한언론인회 趙昌化 회장과 가진 '한국의 언론 현실과 李明博 정부의 언론정책'을 진단하는 특별회견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권 전 사장의 특별회견 내용이다.

신문기자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이 돼야 합니다. 공우병이다. 황우석 박사가 어떻게 해서 온통 시끄러웠는데, 기자가 과학을 잘 몰라요. 기자가 무얼 해야 하나요. 프로페셔널 스탠더드를 높이려면 공부할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해요.

신문의 역할은 'well informed public'에 있어요. 우리 언론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서 고함만 질러대는 형상입니다. PD수첩이 그래요. 촛각을 다 두어 언론이 이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별로 안 합니다. 신문에 에디터가 없어요. 본질에 대한 디스커스를 너무 안 해요.

한국전쟁에 관한 책만 하더라도 외국 기자들이 쓴 책은 많은데, 한국 기자가 쓴 책은 별로 없어요. 기자에게는 우리나라의 public(공중)을 잘 알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말입니다.

민주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우리 말이 달립니다. 어휘가 명쾌하지 못해요. 한글 사전이 옳은게 없습니다. 사전 만드는 정성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신문 만드는 게 그래요. 일본만 하더라도 super best seller는 바로 일본어 사전이에요.

'여론(public opinion)'은 '대중의견(mass opinion)'과 다릅니다. 독일의 세

公衆에 바른 情報 주는 프로정신 실종 자신도 잘 모르면서 목소리 경쟁 열중

계적인 지휘자 빌헬름 푸르트벵글러(Wilhelm Furtwängler)가 나치 치하에서 연주활동을 했다가 패전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 회부돼 하틀라에게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재판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았습다. 그는 이에 대해 "독일 '민중(publikum)'을 떠난 독일 음악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내부의 악마로부터 독일 음악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나치스를 지지한 건 '대중(mass)'일 뿐, 자신은 독일 음악을 위해 독일의 '푸블리쿰'을 떠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 결과는 무죄였지요. 한국의 '푸블리쿰'이 있느냐 하는 건데, 나는 아직 형성 중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널리

즘이 그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KBS사장 문제를 놓고 지지와 반대로 온통 시끄러웠는데 이것도 결국 시청자들을 'well informed' 하는 역할엔 소용이 없고 목소리 경쟁이나 벌인 형국입니다.

신문사 내부 조직의 장(長)이 너무 많아요. 상징적 호칭(symbolic title)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석, 실장, 주필... 그리고 무슨 무슨 대행 등. 이들이 얼마나 다른 역할을 하나요. 신문의 역할은 단순히 '이대'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이 아니라 '하대' 오리엔테이션(do orientation)을 추구해야 합니다. 일본 명치유신(明治維新)의 이데올로기는 바로 'do oriented'입니다. 사무라이가 무

엇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얼 하는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사실보다 그가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신문기자는 프로이지만 그 프로는 전승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프로페셔널이 아들한테 그대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기댈 수 있는 게 없는 존재가 프로입니다. 그래서 프로는 외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 어디 출신 기자가 더 출세하느냐 하는 것은 'is oriented'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방송사 사장 하나 바꾸지 못했니까. 신문이 누구 편이나 하는 것부터 잘 못이구요.

워싱턴 포스트의 하워드 사이먼스가 니만 펠로(Nieman Fellow)의 큐레이터로 방한한 적이 있어요. 그는 신문기자는 프로이고 프로는 선거로 뽑는 게 아니란 말을 했어요. 닉슨을 대통령직에서 몰아낸 워터게이트(Watergate)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국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의 논리는 군인도 프로인데 군대에서 연대장을 선거로 뽑는다면 백전백패밖에 더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선 대통령도 노조위원장 뽑는 것처럼 선거로 뽑는데 말이 안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 국가로서 쇠고기 문제로 난리를 치는 한국의 언론은 수치입니다. 이명박(MB)정부도 그렇지만 언론이 'miss informed'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도 아닌 것을 미국 방송이 보도한 단편적 내용을 모아 무책임하게 보도합니다. 설명을 듣는 기본 자세도 안 돼 있고요. 거기에 부하뇌동하는 국민수준도 그렇구요. 언론은 10개를 알면 하나 정도를 써야 하는데,

우리 언론은 하나를 알고 10개, 12개를 써요. 또 취재기자는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직렬로만 볼 게 아니라 병렬로도 놓고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기자도 그렇고 법조도 그렇고, 잘못된 게 많은데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우리 기자는 현장에 가지 않고 기사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엔 여가에 하나 더 '어느 편이냐' 하는 평가까지 합니다. 취재원이 기사를 만나면 얻어듣는 것도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건 하나도 없고 또 무슨 영터러 기사 쓰게 아닌가 싶어 겁부터 난다면 안 되지요.

〈2면으로 이어집니다〉

“제대로 된 어휘사전 없는 현실 한심”

〈1면에서 이어집니다〉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검거, 발표한 간첩단 사건에 재미 동포가 끼여 있었습니니다. 동포신문 다섯이 정보부 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본국 신문기사를 전재, 보도했다가 모두 60,000달러, 그러니까 한 신문이 12,000달러씩 물어낸 적이 있어요. 무혐의로 밝혀진 재미동포가 오보를 낸 동포신문을 제소해 미국에서 이런 판결을 받아냈습니니다. 판결 요지는 “정보부 공식 발표라 하더라도 잘못된 내용을 프린트한 건 신문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니다. 같은 내용의 기사를 여러 기자가 다 함께 써서 보도하면 오보라도 책임이 없다고 여기는 우리 신문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좋은 본보기입니다. 미국 신문은 확인되지 않은 기사는 안 써요. 신문 제작의 문법이 달라요.

신문사에 과학부를 신설할 무렵 뉴욕 타임스의 월터 설리번 과학담당 기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과학기자가 된 자격을 물었더니 특별한 건 없고 훌륭한 기자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과학 전문지널에 실린 내용 가운데 자기 아내가 알아두면 좋을 과학기사를 아내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 쓰는 프로가 과학기자라는 겁니다. 미국에 수소폭탄이 3개 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던 기자의 대답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말하기를 자신도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과학기사를 이해하기 쉽게 쓰는 기자라는 찬사를 받았던 기자가 바로 설리번입니다.

꼭마당에서 사장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이지요. 신문사 사장보다 더 많이 돈을 받



“무엇이냐” 보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

언론사장은 記者가 맘껏 取材하도록 지원해야
정부는 잘못된 기사 불량상품 감시하듯 하면 돼

아야 하는 기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뉴욕 타임스에 영국 출신 기자들이 많습니니다. 영국인이 영어를 더 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

다. 우리는 아는 사람들끼리 하니까 세계화가 안 됩니다. 언론사 사장은 기자들이 맘껏 취재하고 'well informed'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기자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장은

사원들에게 복지비나 나눠 쓰도록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업이 언론사 지분을 갖는 나라는 민주국가에서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부자한 언론사로부터 주주배당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구요. 이런 부조리입니다. 정권 잡기 전엔 이런 부조리 없애겠다고 국민 앞에 공약하고 막상 정권 잡으면 흐지부지합니다. 언론을 우군(友軍)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 없애면 실직자가 나와 안 된다는 반론에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공기업 주식과 언론 관계, 모순이 너무 많아요.

나는 MB정부가 언론과 관련, 구체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신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MB가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합니다. 미국엔 우리나라의 문공부와 같은 기구는 없지요. 언론법도 따로 없구요. 헌법이 최고지요. 정부는 아무 것도 안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조업인 신문이 잘못된 내용을 써서 마구 뿌리면, 식품제조회사가 만든 제품에 독이 들어가는 걸 감시하듯 하면 됩니다. 잘못하는 걸 못하게 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면 됩니다. 우리 언론환경은 응원단만 모인 운동장 같아요. 선수는 없고 목소리 큰 사람이 제일입니다. 운동장관리소장이 운동 선수보고 큰 소리치는 것과 같아요. 무질서 같은 것, 무정부 상태입니다. 질서를 잡아 줘야 합니다.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일반 공중의 피해를 막는 건 정치나 공권력이 해야 합니다. 언론자유 침해는 아닙니다. 스스로 절제하면 좋은데 그게 안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불법 폭력데모는 못 막고 길이나 막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정부가 돼서는 안됩니다. [국문]

이 시대 ‘참 언론인’을 찾습니다.

‘08년 大韓言論賞 공모... 12월 15일 시상

大韓言論人會는 언론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2008년도 대한언론상 수상 대상자를 공모한다. 대한언론상 심사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선정 대상자를 접수, 12월 초 시상자를 확정한다. 시상식은 12월 15일(월) ‘송년의 밤’ 행사 때 갖는다. 심사대상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0일까지 발표된 내용이다. 분야는 보도, 논평 및 언론학술연구 등이며, 일간신문, 통신, 방송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응모 요령

- 분야 : 보도, 논평, 언론학술연구
- 대상 : 일간신문, 통신, 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관련 단체 또는 개인
- 공적기간 : 2007년 11월 1일 ~ 2008년 10월 30일
- 구비서류 : 이력서, 사진 2장(명함판), 공적자료 1부
- 접수마감 : 2008년 11월 15일 오후 5시
- 시상 : 2008년 12월 15일
- 접수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100-745 전화 02-2001-7621, 02-732-4797



불타는 월街, 左派 언론 부채질 심각

세계 금융의 센터 미국 월가(街)가 불타고 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이 대화재는 런던, 도쿄(東京), 상하이(上海),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서울 등 세계 금융시장에도 불뚝을 뿜고 있다. 미국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금융의 붕괴화로 빚어진 월가발(發) 금융쓰나미는 월가의 불길이 잡히지 않고서는 안정될 수 없다. 우리도 세계 13의 경제대국으로 미국 정부의 방화작업에 경제선전국들과 협력하면서 우리의 피해 최소화해 진력해야 한다. 부시 미 대통령은 “금융시장 안정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영국, EC(유럽 공동체), 일본, 캐나다, 스위스 등 6개국 중앙은행은 이번 금융대란에 상호협력키로 하고, 미 FRB(연방준비위)가 다른 5개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달러화 교환 예치 한도를 1,800억달러 증액했다. AIG에 850억달러 등 그 동안의 긴급수출로 자금수요가 컸던 FRB로서는 미국 국가신용등급(AAA)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세반전의 전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 금융대란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어떻게 수습될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 자유시장의 수정 등 세계 금융체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불확실성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당면 현안은 투자자의 신뢰회복이다.

9월금융위기설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금융시장은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반응이 크다. 지난 9월 17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 대통령국가경쟁

력강화 위원장)과 무역협회 공동 초청으로 내한한 찰스 달라라 국제금융연합회(IIF·전 미 재무부 차관)회장은 조찬강연에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이 더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데도 지나치게 불안해 하는 것이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하지만 앞으로 1년간은 금융



이재승
· 본회 회장
·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

때는 외국인 투자기관 사이에 채권 순매입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외면했다. 또한 2일지에는 1면 사이드 톨으로 ‘외국인 이탈비상, 금융총체적 혼란’이라고 선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환율이 27원, 주가가 59 포인트 급락(코스피 지수가 1414로 하락)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3일지에는 1면 톨으로 “정부 못

투자 부진→경기 침체수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했다. 양적으로 타지들을 압도했다.

한겨레의 거의 비판일변도적인 보도에 비해 조선, 동아, 중앙, 한국, 문화 등 보수 우파 내지 중도 신문들은 정부의 혼선, 낙장 대처 등 실책을 신랄히 비판하면서도 경제안정 지향에 무게를 뒀다. 조선은 9월 4일자 1면 톨에 ‘한국경제 9월 위기없다’라고 무디스, 피치, S&P(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의 한국경제 신용평가 책임자들과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실었다. 영국의 더 타임스지가 지난 1일 ‘한국이 검은 9월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 시장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는데 대한 대응으로 이들 3사의 위기부인

理念에 편향돼 객관성 - 합리성 모두 잃어 나쁜 것 반복 보도로 ‘미디어 맬러디’ 우려

불안이 계속될 것이다”고 했다.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지만 지나친 비관도 독이다. 정부, 시장, 투자, 언론 등 각자의 역할이 있다. 신문, 방송 등 우리 나라 언론은 97년 IMF(국제통화기금) 환란(換亂)의 트로마가 있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달아주려는 노력을 몰고 하고 있는가.

이번 9월위기설의 전개 과정에서 그 행태가 잘 드러났다. 위기설의 고비는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사이의 5거래일주일 사이였다. 또한 채권만기가 집중된 9, 10일이였다.

진보 좌파의 대변지격인 한겨레신문은 촛불데모 때처럼 부채질 했다. 9월 1일자 3면에 “한국경제, 불안한 9월... ‘위기설’ 다시 고개 든다”며 ‘외국인 재투자 가능성 낮아’라고 뒷받침했다. 이

민졌다... ‘셀 코리아(한국자산매도)’가 속화’라는 제목 아래 ‘셀 코리아’를 클로즈업했다. 그러나 ‘셀 코리아’는 이틀만인 4일 순매수로 반전됐고 원·달러환율도 하락했다.

이것이 5일자 신문 18면(경제면) 우측상단에 2단으로 찾아보기 어렵게 실렸다. 단속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을 외국 투자자들이 줄이어 떠나는 것처럼 보도했다. 과정이요 불균형이다. 그런가 하면 8일자에는 ‘이 대통령 경제운용 잘못 73%’라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이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열을 냈다.

그런가 하면 18일자에는 금융시장 ‘월가 쇼크’를 4개 면에 특집, 미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타격’을 부각시켰으며 ‘기업 자금난→수출 부진→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동아도 4일자 1면 톨으로 ‘한국 9월 위기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도 3일자 1면 톨으로 ‘9월 위기설 부풀려졌다’고 위기설을 잠면으로 부인했고, 중앙도 3일자 ‘외국인들, 17억 달러 이미 재투자했다’고 전했다. 환율은 사실상 9월 4일 5거래일만에 꺾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정부측의 개입도 작용했지만 보수 우파신문들의 협력적 보도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언론이 이데올로기에 편향될 때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게 된다. 경제는 집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이 미치는 만큼 나쁜 것을 반복해서 보도하면 사실 그렇게 된다는 ‘미디어 맬러디’(Media Malady·병폐)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겠다. [국]

“우리 사회의 언어, 의견과 사실 구분못해”

소설가 김훈 씨 “소통아닌 단절의 장벽 쌓는 무기로”

광화문 포럼서 강연



의 당파성이 정의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칼의 노래’를 쓸 때 영감을 받은 충

무공의 ‘난중일기’를 예로 들며 그는 “이 책의 놀라운 점은 충무공의 덕성이 나 지성이 아니라 조선의 당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에만 입각해 글을 쓰는 정신”이라고 말했다.

김훈씨는 “나는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인간의 진실은 신념보다 의심 속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젊은 사람들이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기보다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해,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정의를 세워야지, 정의 위에 사실을 세울 도리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에서는 단절과 장벽만이 쌓인다”며 “이런 사회에선 결국 소통에 의해서만 가능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인 시각을 강조했다. [국]

‘남한산성’ ‘칼의 노래’의 소설가 김훈(60)씨는 “우리 사회의 언어가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라며 “지배적 언론이나 담론이 당파성에 매몰돼 의견을 사실처럼, 사실을 의견처럼 말하고 있어 단절의 장벽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 우리 젊은이들은 현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서적, 이념적으로 인식한다.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이 아니라 ‘내편이냐, 아니냐, 내게 유리하냐, 아니냐’로 인식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김씨는 9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광화문포럼(회장 남시욱)이 개최한 아침공론 마당에 참석, ‘나의 문화와 사회인식’이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요즘 신문, 저널 읽기가 고통스럽고 목이 쉴다”고 털어놓은 그는 “현재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들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줄 모르는데 그것은 자신

‘대한언론’ 등 저술지원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이사장 문창국 중앙일보 주필)은 지난 9월 4일 2008년도 하반기 언론인 저술 출판지원 대상자로 대한언론인회 회보 ‘대한언론’ 등 10명을 선정했다.

▷이기환 경향신문 문화부 선임기자 ▷여규병 동아일보 미디어연구소 연구개발팀장 ▷이호준 서울신문 뉴미디어국장 겸 비상임 논설위원 ▷최승현 조선일보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유권하 중앙일보 기획전략실 부장대우 ▷정재용 KBS시사보도팀 시사기획 ‘썬’ 기자 ▷류종현 MBC 영상취재부 기자 ▷박창희 국제신문 기획팀사무장 ▷언론인 남중구 추도집 발간 위원회.

오늘과 내일

MB의 理判事判



정재호
· 본회 논설위원
· 전 국회의원
· 현정회 고문(원)

다. 위기설의 그림자가 맴돌고 있는 한 위기는 삼존한다. 얹힌 데 얹힌 격이다. 미국 발 금융대란이 세상의 돈을 뒤엎리게 했다. 쓰나미 전면에 우리가 서 있는 형국이다. 가뜰이나 얼어붙은 국내 경기는 기진맥진이다. 이 정권 탓은 아니지만 제대로 풀리는 일

있다. 집권당은 정치값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MB노믹스의 핵심은 성장과 공기업 개혁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이명박의 의욕은 닷에 걸려 신음 중이다. '민영화'를 '선진화'로 표리표만 갈아 낀 말의 곡에는 손이 나는 치사(恥事)의 극치다.

正體性 바로 세워야 앞이 보여 성장 - 公企業개혁 승부수 필요

이 없는 판에 재수에 몸 붙었다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나라 안팎 사정은 한마디로 풍우대작(風雨大作)의 막구를 때려 휘저어있다. 국내 정정(政情)은 더욱 고약하다. 야당은 그렇다 치고 이명박 정부의 좌절을 노리는 저격수들이 가능자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촛불'에 휘둘려 파김치가 됐던 대통령의 축 처진 안색을 다시 한 번 대변하고 싶어 하는 그들이 다.

정권 흔들기에 재미 붙인 세력들의 이념적 결집력은 만만찮다. 민노총과 전교조를 축으로 하는 진보 좌파 시민단체는 보다 후련한 한판승을 베풀고

정치공학의 요령에 눈뜬 MB의 행보가 수상쩍다. 시류를 쫓는 눈치다. YS DJ 노무현을 잇는 정권의 전철을 흉내내고 있다. 포퓰리즘의 유혹이 정권의 안팎을 흐리게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또 하나 관찰의 초점은 MB가 도모하고 있을 법한 '복지부활전'이다.

지난 6개월의 굴욕적인 수모를 보상받고 말겠다는 심정은 인지상정일터. 승부욕이 유별난 MB의 성정이다. 분명히 건곤일척의 '거사'를 다듬고 있을 것이다. 물론 권력이 작용하는 '보복' 따위는 어림없는 수작이다. 정적을 압도할 만한 참신한 국정 전개를 통한 '이관사관'의 승부수를 띄워야 할 차례

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게 있다. 열심히 뛰고도 욕 먹는 까닭을 제대로 캐야 하는 일이다.

승차 531만명의 위풍당당한 대통령이 졸지에 추풍낙엽의 쓴 잔을 강요당한 패착의 원인을 스스로 살펴야 한다. 촛불에 물려 청와대 뒷산 종턱에 올랐던 앞 뒤 사정의 진실을 백지장에 그려놓고 자책(自責)의 중심에 대통령이 좌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지식사회의 포괄적 인식은 짧고도 예리하다.

정권의 '정체성 부재'가 화근이라는 것이다. MB정권의 색깔이 아리송하다는 얘기다. 긴가 민가의 헛갈림 속 착시현상만 증폭됐다. 이왕에 이관사관이란 말이 나왔으니 제대로 한 번 살펴보자.

한자를 붙이자면 이관(理判)사관(事判)이 된다. 본시 불교의 내력에서 생긴 말이다. 이관은 속정(俗情)을 등지고 자아의 정체성을 닦는 구도(求道)를 일컫는 뜻이요, 사관은 사찰의 관리 잡무 따위 일상의 쓸모를 쫓는 노릇을 뜻한다.

굳이 갖다 붙이자면 '뿌리'와 '가지'의 관계라고나 할까. 뿌리 깊이 못한 나무가 바람에 휘청거림은 정한 이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찍이 정권의 뿌리와 색상(色相)을 밝히려 했다. "이 정부는 보수 우파요"라고 꼭 부러지게 선언하고 시작했어야 옳았다.

이관과 사관을 나란히 세우면 창과 방패를 두루 갖춘 양수결장이 되려만.

잠시 뒷전으로 돌렸던 '실용'을 다시 건져 올려도 무방할 터. '엔도르핀'과 '입덧'을 걸어놓은 MB부부, 모처럼의 희망기도 제면이 설 것이 아니겠는가. ■

내가 KBS 파리 특파원으로 있던 1980년대 말.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던 사회당의 프랑수아 미테랑 후보와 우파 연합의 자크 시라크 후보가 맞붙은 선거였다.

선거전은 치열했다. 결과는 미테랑 대통령의 재선이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엘리제 궁에서 초대장이 왔다. 미테랑 대통령이 기지들과 티파티를 하고자 하니 참석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초대된 날에 나는 승용차를 몰고 엘리제로 갔다. 지정된 곳에 주차를 하고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라 파티장으로 가니 내외신 기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내가 TV에서 흔히 보던 뉴스 앵커들을 비롯한 스타 기자들을 직접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파리에는 외국 특파원들이 많다. 그 날도 꽤 많은 파리 상주 특파원들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한국 기자는 만날 수 없었다. 엘리제 측에서 KBS를 한국의 대표 언론으로 생각했는지 모를 일이었다.

100여명의 기자들이 선 채로 차를 들며 끼리끼리 얘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미테랑 대통령이 파티장에 들어섰다. 대통령이 입장한다는 특별한 예고도 없었다. 찾잔을 집어 들고 다가오는 대통령의 주변을 기자들이 에워쌌다.

대다수 프랑스 정치인들처럼 미테랑 대통령은 말을 잘 한다. 그는 철인적인

실종된 밀월



유자호
· 본회 회부
· 전 KBS 파리특파원

종모를 지닌 정치인이지만 유머 감각도 풍부하다.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에서 시라크 후보의 논리 정연하고 집요한 공격을 부드러우나 촌철살인의 유머로 넘어감으로써 유권자들의 호감을 사기도 했다.

대통령과 기자들의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

자기들끼리 얘기를 주고 받으며 주차장으로 와서 각자 차를 끌고 제 갈 곳으로 돌아갔다.

대통령 당선 후 가진 언론인들과의 티파티 분위기처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언론의 논조는 상당 기간 우호적일 것이다. 프랑스는 언론도 우파와

새 政府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 政權 초기 기다려 주는 자세를

애했다. 연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지켜보는 외국 기자의 입장에서조차 마치 노인파 젊은이들이 농담 따먹기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스탠딩 파티이니 만큼 화제도 가벼운 편이었다. 조크와 조크의 연속이었다. 한 시간 쯤의 티파티가 끝나고 대통령의 피날레 조크와 기자들의 폭소가 터진 뒤 대통령은 파티장을 떠났다. 대통령이 밤을 떠날 때도 특이한 세리머니는 없었다. 단지 분위기 좋은 파티가 끝나는 것과 같았다. 기자들은 다시

좌파의 색채가 분명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지나친 비판은 삼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새 대통령과 언론의 밀월 기간과도 같은 분위기였다.

외국 기자의 눈에는 그것이 새 정부가 제대로 자리 잡기를 기다려주는 일종의 배려처럼 보였다. 자리를 잡기도 전에 비판부터 가해지면 기초가 약한 새 정부는 여론의 공세에 휘둘릴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후 상당 기간 언론과의 밀월은 필요한 것

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런 개념의 밀월 기간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비단 언론 뿐 아니라 반대 세력의 공세도 새 정부 출범 직후라고 해서 배려해주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반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 새 정부로서는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을지도 모르겠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 종교 편향 시비, KBS, YTN 사장 선임 문제를 비롯한 모든 쟁점들에 상당수의 언론들이 새 정부를 맹타했다. 그야말로 영일이 없었던 반년이었다.

이런 양상은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에도 나타났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까지 치달았던 것도 그 때에 속한다. 그 때나 지금이나 피해는 국민 모두가 입는다는 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뤄질 정도로 성숙해졌다.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 정부와 언론의 밀월 기간이 주어졌으면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자리 잡을 동안 기다려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 기간은 반년이면 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이다. 새 정부의 성공은 국민들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베이징으로 부터의 메시지

올림픽 대회의 승패를 가름하는 여러 가지 조건의 총족이라는 의미에서 베이징 올림픽은 화심의 성공작이었다. 100년이 넘는 올림픽 역사를 통해 규모와 시설과 운영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 커다란 획을 그은 것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을 그 효시로 삼는다. 베를린의 경우를 20세기 올림픽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베이징 올림픽은 21세기 수퍼 올림픽의 출현을 예고하는 하나의 파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올림픽을 한 차원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베를린과 베이징은 공통점이 있고 1936년 강대국의 한 축을 이룬 히틀러의 제3제국과 2008년 천다의 선두주자로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선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노리는 목표는 미국을 뛰어 글자 그대로 강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겠다는 점이다.

독일 민족을 근원(根源) 민족이라고 한 피히테의 주장을 이어받은 히틀러의 인종우월주의가 올림픽 개최의 배경에 도사리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가혹한 베르사유 조약의 적용으로 만신창이가 된



김광희

· 본회 회주
· 전 동아일보 이사

을 열었다. 히틀러군의 침공으로 통하는 3,000km, 성화 봉송의 역 코스였다.

세계 신기록 43개를 양산한 베이징은 아테네(2004년 28개) 시드니(2000년 13개)를 합친 것보다 기록 면에서 더 풍성했고, 특히 중국은 거의 전 종목에 걸쳐 미국을 제치고 독주, 금 51-36, 은 21-38, 동 28-36의 압도적인 우세로 올림픽을 석권했다.

430억 달러를 들여 13억 인구, 5000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건 개막식과 폐회식의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과 섬세한 연출에

과라고나 할까?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벗이 있어 먼 곳에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않으랴)라는 공자 말씀은 벗에 대한 극진한 예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초청을 받아 '먼 곳에서 찾아온 귀한 벗들'인 90여 개국 정상들은 그러나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부채를 부치면서 몇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반면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들은 시원한 냉방부츠 안에서 환담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 그것은 차라리 하나의 아이러니였다. 평생 처음(?)으로 부채를 부쳐 보았을 부시와 푸틴 등 내로라 하는 세계 정치지도자들을 향해 공자의 후손들은 '人不知不愠不亦君子乎'(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 하지 않는다)라는 여유를 보였다. 아편 전쟁 이래 겪은 민족적 수모와 좌절을 올림픽을 전환점으로 해서 대중화(大中華)의 재현으로 삼으려는 강력한 어필, 강력한 메시지가 로열박스 주변의 화려한 풍경으로 오버랩되었다.

베를린 올림픽이 민족에 악센트를 붙였다면 베이징의 메

히틀러의 베를린올림픽 떠올라 '大中華' 재현 의지 세계가 경계

독일과 독일 국민을 추슬러 올리는 과정에서 대두한 히틀러의 나치당은 그 권토중래를 위해 올림픽 개최를 가족제로 삼았다. 따라서 베를린 올림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치즘 구가(國家)에 의한 '민족의 제전'으로 시종했고 결과적으로는 금메달 33-24로 미국의 아성을 무너뜨려 그 힘을 과시했다. 나치 올림픽의 저자 리처드 만델은 "36년 대회 성공의 대부분은 독일 국가사회주의자들에 의한 일대 집단극의 추구"라고 정의했다. 일대 집단극의 추구라는 점에서 베이징 올림픽은 베를린 대회를 확대재생산한 감이 없지 않다.

나치 찬양일색이었던 개막식에서 제1회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인 그리스의 스피리돈 루이스는 올림포스산의 아홉 올리브 가지를 히틀러에게 건네면서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 이 올리브 가지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평화의 경쟁만을 할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3년 뒤 히틀러의 전격부대는 체코에 교두보를 두고 헝가리 유고 오스트리아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를 유린, 순식간에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돌파, 제2차 세계대전의 전단

대해서는 놀라움과 함께 인간 능력의 한계가 어디인지 가능하기 어려움을 절감할 뿐이었다.

그러나 '감탄은 있으나 감동은 없었다'는 외신의 지적이 정곡을 찌른 평가였다는데 통감한다. 88 서울올림픽에서 굴렁쇠를 굴리며 초원을 달리던 그 어린이의 티 없던 모습, 애플란타 올림픽에서 세기의 천권 무하마드 알리가 온몸을 사시나 무뎠다면서 예세 성화 접화 버릇을 누르던 모습들이 겹쳐지면서 역시 올림픽은 인간의 냄새가 배어 나와야 되겠다고 느꼈다.

문제는 사람을 기계의 부품처럼 조립하고 해체하며 무한 동원과 조율, 한 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메커니즘의 가공할 힘과 이것이 허용되는 사회제도가 존재하느냐에 있다. 경제대국, 군사대국에서 문화대국으로의 침묵이 아쉬운 중국이 올림픽을 통해 어필하려는 저의는 바로 개막식과 폐막식의 엄청난 물량과 그 속에 녹아있는 5000년의 역사 그리고 문화였다. 문화혁명 때 역사와 장(場)에서 낙마했던 공자(孔子)가 베이징 올림픽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화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전시효

시지는 세계의 중심인 중화사상의 부양이라 하겠다. 성화 봉송길에 보여준 중국 '바람하우(八零後)' 세대의 동등한 기세, 에베레스트 정상의 힘으로 성화를 올려 보낸 저력, 정통적인 알파벳을 한자의 소전체(小篆體)로 바꿔 입장순서를 정한 발상, 그리고 내친김에 올림픽 기념 유인우주선을 발사하겠다는 호언의 저변에는 올림픽 이후의 변화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천년 젊음이'들로 표현되는 국내외 웹 사이트의 극성스러운 국가주의가 올림픽을 전후해서 고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뮌헨외교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섰던 헨리 키신저는 "중국에서 공산주의를 대체하는 이념으로 서방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민족주의가 득세한다면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위의 민족을 아만 시하고 중국이 세계의 중앙에 위치한 가장 문명화한 나라라는 뜻인 '중화'를 성급하게 주장하는 것이 인권과 자유 평등처럼 보편적 가치대신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쏠린다면 그야말로 커다란 재앙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圖]



우간다 난민촌에서의 필자.

유니세프와 나

유니세프와 인연을 맺은 지 올해로 만 20년이 된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국내외적으로 과시되기 시작하던 1988년 여름 한국을 공여국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던 유니세프는 이 작업을 추진할 책임자를 찾고 있던 중이었다. 그 자리에 내가 선택된 것은 당시 국제사회에서 경제사회개발의 주요 성공요인으로 꼽혔던 인구·가족계획 홍보 분야에서 쌓은 나의 대중동원 경험과 이보다 앞선 일선 기자생활 및 대학에서의 강의 경력 등이 크게 참작되었던 것 같다. 외국인 대표로 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이제 한국 유니세프는 하루 빨리 후발국 어린이를 돕는 선진국형 민간기구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은 무한한 가능성 가진 엄청난 숲입니다. 당신이 할 일은 나무를 베어내고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40년간 남의 도움을 받아오던 한국에서 과연 기금모금이 제

박 동 은

· 본회 회주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동원해 사람을 만나고, 회의를 열고, VTR을 차에 싣고 먼 길을 달려가 유니세프 사업을 설명하고... 2, 3년의 노력 끝에 유니세프를 후원하는 문화예술인클럽, 언론인클럽, 교장클럽, 어머니클럽, 변호사클럽 등 5개의 후원클럽을 조직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화배우 안성기씨와 소설가 박완서씨, 디자이너 양드레 김을 만나 친선대사로 모시게 됐다.

1993년 봄, 당시 내분이 절정에 달했던 소말리아와 이디오피아를 다녀온 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직에 들어갔다. 유니세프 본부와 한국 정부간의 한국위원회 설립을 위한 승인합의서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정관을 만들고, 이사가 선임되고, 1994년 1월 1일 한국인 지도체제의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탄생

남을 돕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것

대로 될 것인가? 어떻게 어디 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어떤 기구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 주위의 의견은 무성했다. 정치권이나 군부의 실력자를 장(長)으로 모셔야 한다. 재벌을 끌어들이야 한다. 또는 정부의 출연기관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등... 당시 우리 사회의 모금에 대한 인식은 연례적인 이웃돕기 성금이나 군사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거액의 준조세격의 모금이 고작이었으니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에 나는 구미 선진국 유니세프를 돌아보면서 새로 탄생시킬 한국의 유니세프는 재벌도 정치권력자도 아닌, 자원봉사자의 기반 위에 설립되어 시민사회에 호소하는 순수 민간기구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큰 발견이었다.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회지도자와 전문직인 중에서 유니세프를 위해 자원봉사를 해줄 인사를 찾자...' 나는 그간의 사회생활에서 얻은 인맥을 총

생했으며 나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90년대 초 우리 사회의 기부와 나눔의 정신은 매우 일천한 상태였고 연말마다 등장하는 구세군 냄비와 관에서 주도하는 이웃돕기 성금 등에 참여하는 소극적인 모금에만 익숙해 있었다. 유니세프가 처음으로 일반시민, 즉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DM 캠페인(호소편지를 통한 후원자 모집)을 실시했을 때 아직 우리나라에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남의 나라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느냐는 일부의 저항은 있었지만 편지를 받은 시민들로부터 의외로 많은 반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유니세프 카드와 선물용품 판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 모금(Change for Good), 맨발걷기대회와 연말디너쇼 등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대중모금을 통해 모금액을 늘려나가 현재 10만 명의 월정기후원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7면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에너지 사랑 캠페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합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실시합니다.)

베이징의 즐거움

보르도로 볼까? 칸느로 볼까?



초점전시리즈
소비전력 **최대 66% 절감**
★★★★★



10년 후의 TV를 오늘 만난다
Pavv 보르도 750
크리스탈 로즈 디자인 | 콘텐츠 라이브러리 | 파워 인포링크 | 파워 와이드링크

초점전시리즈
소비전력 **최대 50% 절감**
★★★★★



영화를 위한 TV
Pavv 칸느 650
크리스탈 로즈 디자인 | 세계최고 100만대 1 명암비

Pavv 베이징 승리기원 페스티벌

이벤트 1. 크리스탈 로즈 경품 대전치 기간: 6월 5일 ~ 8월 17일

행사기간 중 홈페이지 또는 매장에서 응모권을 작성하시면 총 1,110명께 선물을 드립니다

1위



크리스탈로즈 6500 1000

2위



다들 예지 1000

3위



영웅이름 (1,000명/인 2명)

※ 매주 111명씩 추첨하며, 탈락시 그 다음 주에 자동 재응모가 됩니다. 발표는 www.pavv.co.kr

이벤트 2. 대한민국 축구 승리기원 이벤트 기간: 7월 1일 ~ 8월 6일

한국축구 4강 진출시 행사기간 중 해당모델 구매 고객에게 상품권을 드립니다

300,000



30만원 상품권

※ 대상모델: 보르도 750/칸느 650 46형 이상

※ 가맹점 상영권자 지정 또는 www.pavv.co.kr을 참조하세요. 본 행사는 참여전에 한합니다

보는 즐거움은 최대로! 대기 전력은 최소로!

- 보르도: 소비전력 66% 절감(1000W/1000W, 1000W/1000W, 1000W/1000W, 1000W/1000W)
- 칸느: 소비전력 50% 절감(1000W/1000W, 1000W/1000W, 1000W/1000W, 1000W/1000W)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 SAMSUNG

신문시평

우리 사회에는 매 순간마다 수없이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이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들의 대부분은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려지지만 그렇다고 발생하는 사건들 모두가 미디어를 타는 것은 아니며 사건 전부를 완벽하게 전달해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보도할 사건 선택에서 기사화 되기까지는 수정, 보완이라는 게이트 키퍼링 과정을 거쳐 활자화 되거나 전파를 타게 된다. 언론매체가 전달하는 일상사는 거울처럼 반사되는 것이 아니라 기사마다 서로 다르게 강조되고 시간, 공간적으로 재배치되는 능동적인 창조과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의제설정(Agenda Setting)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모든 뉴스는 발생한 그대로 보다는 선택되고 가공된다는 이 이론은 곧 민주주의의 기본인 여론의 형성이나 유통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신문·방송 경영문제 등과 연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에서는 우리 신문 시장의 60~70%를 몇몇 주요 일간지들이 차지하면서 여론을 주도하고 사회적 감자의 역할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의도에 따라 의제가 만들어지고 여론이 형성되는 경향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전 정권에서 여러 가지 방법 또는 선별적인 방법으로 지역 일



이 병국

· 본회 회우
· 전 한국경제 부국장
· 한서대 대우교수

남용 수확감소, 가계대출 위기, 중국내 반한 감정, '선진국만연대' 급부상으로 각각 다른 주제였고, 6, 19 및 20일자 역시 주제가 각기 달랐다. 주제가 의제가 매체마다 달라 여론의 다양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6개 매체의 톱기사가 '금융시장' 이야기로 모두 함께 나타난 것은 17일자 하루 뿐이었다. 그러나 이 날의 톱기사는 미국 월가 부자은행의 파산 등 엄청난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오는 특별한 현상이며 예외적이어서 다양성 부족의 책임을 신문에만 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6개 매체의 톱기사 중 4개가 같은 내용을 보인 것은 9, 10, 11, 13 및 16일 등 5일간이었다. 9일자의 경우, 매체들은 소위 '9월경제위기설'의 해소 가능성이라는 '큰 뉴스'에 쫓겨 의도적으로 같은 의제를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과 같이 특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일부 언론이 특정한 의제설정을 통해 정파적 또는 이념에 매몰돼 의도적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쉽다. 그러나 필자 나름의 분석으로는 일부 신문이 구조적으로 특정 이익집단을 옹호하는 의제를 설정해 여론을 이끌어가려는 시도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물론

방송시평

2008년 봄 여름시즌 한국방송가를 휩쓸고 지나간 '광우병과 촛불시위'라는 화두는 여름이 깊어 가면서 조용히 무대 전면에 사라져 갔다. 그 대신 9월에 접어들면서 이를 대치한 방송계 화두는 '민영화 반대'와 '낙하산 인사 반대'로 모아지고 있다.

이병순 KBS 신임 사장이 일부 반대인사를 주장처럼 낙하산을 타고 여의도에 입성했다는 나는 알지 못한다. 이 사장 임명을 반대하거나 혹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KBS사원행동' 측 목소리는 추석을 지나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점차 사그라들었는가 하면, 다른 많은 사원들이나 KBS 선배들은 이 사장 취임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이 사장 임명은 전임 정연주 사장이 끝내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퇴진한 뒤 친 정연주파 사원들에 의해 다소간의 저항을 받긴 했지만, KBS 출신 제 1호라는 상징성과 지난 5년간 정연주가 남긴 상흔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환영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장의 앞날은 그가 국회사임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나아가 정연주의 '인사전환'과 그동안 쌓인 엄청난 적자경영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숙제로 남게 된다. 정말 이 사장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신 대근

· 본회 회우
· 전 MBC보도제작국장
· 전 총주·대구 MBC사장

성들이 모였다는 방송사에서의 이런 일탈행위를 회사측이나 공권력이 그냥 좌시할 것인지 지켜 볼 일이다.

MBC PD수첩 진행자들이 '보직'을 사퇴했다고 한다. 뒤를 이어 신임 시사교양국장도 보직을 사퇴했다는 소식이다. '보직사퇴'가 인사규정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만두겠다고 나서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KBS나 MBC는 수십년 전에 문을 닫아야 했을 성 싶다.

끝까지 방송현장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현장을 지키면서 싸워나가는 것이 방송인들의 자세가 아니었던가? PD수첩은 광우병 파동에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생각이었는데, 이는 두고 두고 MBC엔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골칫거리로만 그쳤으면 좋으련만 시청자들의 MBC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PD수첩은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MBC와 KBS2의 민영화와 민영 미디어 신설 문제는 윤가를 방송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MBC 내부에서는 이른바 '노영방송'의 불에서 벗어나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민영화에는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들이 있어 왔다. 그것이

1면 톱기사 다양한 의제 보도 의도적 여론형성 시도 안보여

간지, 주간지 등에 '해택'을 준 정책을 펴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반면 다른 편에서는 자유경쟁에 의한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방어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흥미 있는 정보와 재미 있는 기사를 제공하면 자연스레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고 여론의 흐름도 자연스러워진다는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머릿기사(톱기사)가 보여주는 의제설정과 여론형성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지난 9월 1~20일간 주요 신문들이 머릿 기사를 통해 의제설정의 내용과 그 의제가 신문매체에 따라 어떤 다양성을 보였는지 나름대로의 잣대로 분석, 여론 편중현상의 정도를 살펴본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및 한겨레의 머릿 기사를 전체 내용과 핵심의 주제어로 분류하면 4가지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매체의 톱기사가 모두 각각 다른 것은 9월 1, 6, 19 및 20일자 4일간이었다. 예를 들면 1일자의 경우, 톱 기사는 '매카시 공포 조성, 전교조 감소, 농약

의도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있다는 톱기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과거 좌파사상이나 간첩혐의자의 검거를 '매카시 선종' '종교편향 갈등 확산 조성' 등으로 다른 대부분의 매체와 시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톱기사에 나타난 의제 중에는 '겸따다(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자)'로 반한 감정 넘쳐 '1인 1가구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등 사회가 새롭게 변해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가는 것도 있어 흥미롭다.

필자는 이 글이 한정적인 데이터와 자의적인 해석으로 비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 자료로만 비추어 본다면 일부 언론의 의도에 따라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특정 정권이나 사회세력이 언론을 이용해 대중을 지배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문]

公正·眞實性 회복이 당면 과제 지나친 自社 이기주의에 눈살

시청자들로부터 좌편향 비판을 받아 왔던 프로그램들을 바로 세워야 하고, 일부 PD들이 '원없이 써봤다'는 제작비도 이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시청료 인상문제는 KBS의 공정성 회복과 방산 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빠른 조치는 구조 조정, 그리고 그들이 매시간 시보 때마다 국민들에게 외치고 있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을 진정으로 실현시킴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구본홍 사장을 반대하는 YTN 사원들의 모습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 출근 반대시위에 이어 자행된 생방송 현장에서의 파켓팅 시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시청자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

50여일간 계속됐던 10여년 전 MBC 파업 때도 방송센터 진입로에서 농성해 뉴스진행에 다소 불편을 주긴 했지만 생방송 현장은 지킨다는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지난번 PD수첩 사과방송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YTN의 생방송 스튜디오 파켓팅 시위는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다. 우리 사회 최고의 지

신정부 들어서 민영 미디어업 신설 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현안 문제로 대두한 것이다. 그야말로 '무너진 공영방송'인 MBC의 민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정부가 서너달 정도 MBC의 문을 닫을 각오 없이는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MBC를 잘 아는 선배들의 얘기이고 보면,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민영 미디어업 신설문제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느낌인데, 이는 종교방송들에 의해 본격적인 저항으로 연결되고 있다. 나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각 방송의 라디오 쇼 프로그램을 즐겨 듣는 편이다. 그러던 9월 중순 어느 날 전 세계가 금융공황에 휩쓸릴 것이라는 뉴스가 우리 밥상을 어지럽힐 때 이를 제치고 민영 미디어업 신설이 '종교방송말살정책'이라는 비판을 대대적으로 방송하는 CBS의 뉴스쇼를 들으면 이 프로그램을 사랑해왔던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국문]

<5면에서 이어집니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등장과 매칭펀드 제도의 실시 등으로 기업의 기부가 늘어났고 유산증여나 기념행사 기부 등 모금방법이 다양해져

유니세프 뿐 아니라 국내 자선기관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1994년 350만 달러로 시작된 한국위원회 지원금은 2007년 말에 1,900만 달러로 증가하여 유니세프 내 36개 기금여국 중 순위 10위에 이르렀고 한

국의 기금모금 잠재력은 높게 평가받고 있다. 구호할 나라와 대상은 많은데 기금은 항상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시민들에게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대중모금 사업을 펼치는 목적이며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정확한 정보와 이유를 알려주고 이 좋은 일에 참여하도록 호소하는 기금모금 캠페인은 시민사회와의 대화이며 교육이다. [국문]

“술로 희석시킨 세월 나이잇고 산다”

“찬란한 불꽃” 실버 파이팅

<3>

최우초대석

金 鎮 燮

· 전 동화통신 편집국장
· 전 경향신문 기획심의실장
· 원로체육인 동우회 고문

인터뷰/ 이규섭(본보 편집위원·칼럼리스트)

대한언론인회 최고령 원로 회우, 4·7 구락부 창립 주역, 비행조종사자격증을 가진 최초의 기자, 항공기로 拉北했다 송환된 기자. 酒神 등은 金鎮燮 대 선배에게 따라 붙는 수식어다. 지난 9월 4일 본회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그는 “수식어는 인물 평가의 미하나 편제의 도구로 흔히 쓰이는 만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연다. 자유분방하게 살아온 기자를 수식어의 굴레에 가둬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늙은 티 안내니 젊을 수밖에”

김진섭 원로 회우는 1918년 3월 1일생으로 卒壽다. 卒은 草書로 쓰면 ‘아홉 구(九)’와 ‘열 십(十)’을 세로로 합한 모양으로 만 90세다.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 “열라대왕에게 가서 너무 조금하게 굴지 말라고 전하라”는 우스개가 있을 정도로 정정하다.

기억력은 또렷하고 말끝에는 힘이 실린다. 단단한 체구에 네타이를 맨 단정함 모습이다. “불같은 성격은 세월이 알아갔다”지만 진취적이고 강인하다는 평안도 사람의 기질이 엿보인다. 간간히 섞여 나오는 평양 사투리에 ‘평양출생면’ 같은 뉘앙스도 느껴진다.

김 회우는 평양에서 태어나 일본 명치 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41년 大韓每日新報로 언론계에 투신했다. 그 뒤 세계통신, 세계일보, 동화통신, 서울신문 편집국장을 거쳐 1975년 경향신문 기획심의실장을 끝으로 은퇴한 언론계의 산 증인이다. 현재도 원로체육인 동우회장, 대한체육인회 고문, 전주 김씨 중앙종친회 명예회장으로 ‘실버 파이팅’을 과시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전쟁 종군기자> (1987년).

“한 세기 가까이 사시며 건강하고 젊게 사시는 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신지요?” 상투적이지만 건강 관리가 궁금하다.

“50년 가까이 격랑의 세월을 거치며 기자생활을 하다보면 보람도 있었지만, 분노하고, 욕먹고, 충격에 휩싸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며 “그 세월을 1년으로 압축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되묻는다.

대답을 망설이자 “충동적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고 스스로 답한다. “파돌아 보면 치열한 삶과 명예도 모두 물거품 같은 것이기에 매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세상사 그러려니 내려놓고 논다”고 말한다.

“희된 욕망은 스스로를 망치고 건강을 해친다”는 달관의 경지다.

“술로 희석시킨 세월에 나이를 잊고 산다”는 그는 “늙은이 대접을 받으려하면 더 늙어진다”며 지하철 경로석도 피한다. 담배는 체질에 맞지 않아 피우지 않았고, 주량은 “여전하다”고 한다. 인터뷰를 마치고 이어진 술자리에서 평소 술 실력이 그대로 드러났다. 소주를 “조금씩 따르겠다”고 했더니 “나머지는 저승 가서 먹으라는 거냐”며 잔을 채우라고 한다. 두 병 가까이 드시고도 흐트러짐이 없다.

“자연과 동화 나무울음 들려”

강단 있는 체력유지의 비결은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과 꾸준한 운동이다. 젊었을 때는 수영을 했고 등산은 생활의 일부가 됐다. “30~40여 년 동안 1년에 1~2번 정도 지리산을 종주했다”고 밝힌다. 노고단에서 반야봉·토끼봉·칠선봉·썰대봉·천왕봉으로 이어지는 종주코스는 동물의 등뼈처럼 휘어져 길다. 그 능선에서 만나는 운해와 낙조, 단풍과 설경은 화려하고 장엄하다. “대자연과 마주하면 눈과 귀, 마음이 트여 힘든 게 없다”는 설명이다.

“바람 한 점 없이 청명한 날 울창한 전나무 숲에서 ‘웅~웅~’ 소리내어 우는 나무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신비의 현상은 무념무상의 공간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관조의 경지일 것이다. “2년 전에도 지리산을 다녀왔다”고 한다.

“심마니들이 산에 오를 때 왜 심산을 정갈하게 하는지 아는지?” 기자 根性(?)을 버리지 못한 듯 질문을 자주 던



프레스센터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진섭 원로 회우.

후壽에 소주 2병 거뜬... 30~40년간 年1~2번 지리산 종주 요즘 기자들 샐러리맨 같아... 언론은 사실보도 충실해야

진다. “깊은 산의 미생물은 사람의 몸에서 풍기는 기름기에 미세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산에 가기 전엔 육류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게다.

지리산에서 3대째 심마니를 하는 70대에 “당신은 진짜 산꾼”이니 형이라 부르겠소”했더니 “산 타는 것은 내가 선배니까 그렇게 하겠소”라고 응수한 뒤 “동생은 오래 살려면 평소 쌀 반찬만 먹으라고 조언한다”는 것.

“나이 들어서 먹는 보약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소신. “산삼도 젊었을 적에 먹어야 효험이 있지 내구연합이 다 된 골골한 체질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보약 많이 먹고 장수하는 사람 못 봤다”고 강조한다. 40여 년 전 신경성 당뇨 진단을 받았으나 운동으로 극복해 왔고 당뇨약은 1년 전부터 소량 복용한다니 타고난 강건한 체질이다.

“마누라 살아있을 때 잘해”

김 원로 회우는 현재 아파트에서 혼자 산다. 68년 동안 회로예탁을 함께 해온 ‘인생의 동반자’ 金昌實 여사(향년 84세)를 지난해 저 세상으로 보냈다.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며 “기자라는 직업이 가정에서 소홀했던 만큼 마누라 살아 있을 때 잘 하라”고 당부한다.

밥 짓는 것은 오랜 산행으로 이력이 붙어 불편은 없고, 이곳에 사는 딸이 밑반찬을 챙기고 수발을 해 준다고 한다. 3남 2녀 중 장남은 교통사고로, 뉴저지주에 살던 차남은 암으로 가슴에 먼저 물었다

며 눈시울을 붉힌다. 그래도 손자가 장성하여 미국 MIT교수로 있어 자랑스럽다는 것.

하루를 마감한 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 잠자리에 든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틀으며 산문을 뒤적이다 아침식사를 마치면 서울 등 하루 12km정도 트레킹을 한다. 오후엔 언론계 후배, 체육인, 종친 등을 두루 만난다. 첫째, 셋째 수요일이면 鸛山會 멤버들을 만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인다. 林寅壽(89), 李貴岩(87) 金明九(78) 등 본회 원로 회우들을 주축으로 회원은 10명이다. 즐겨 보는 TV프로는 ‘여행다큐’. “대부분 둘러 보았던 세계의 관광명소를 따라 마음의 여행을 하면서 추억을 떠올리게 되어 즐겁다”고 한다.

“언론, 이념에 치우쳐선 안 돼”

이야기가 요즘 언론에 이르자 톤이 높아진다.

“광우병 촛불집회 보도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보수·진보 언론의 대립은 국민을 오도할 뿐 아니라 일제말기 좌우대립을 연상케 한다”고 꼬집는다. “신문은 독자위주로 사실보도에 충실해야지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 “요즘 기자들은 샐러리맨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기자가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려면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사건은 무엇인가?”

“수많은 사건들의 연속이었지만 납북됐다 송환된 사건을 잊을 수 없다”며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1958년 2월 16일 일요일, 세계통신 편집국장으로 부산공군기지 취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갔다. 운항예정인 KNA 항공(KAL 전신) 4發機가 기체 고장으로 쌍발인 DC3 청량호로 바뀌었다. 항공권을 못 구해 팔팔때던 중 韓戰時 당시 국화부의장 부인이 비행기 시간을 대오지 못해 대신 탑승했다.

오전 11시30분, 비행기가 평택 상공에 이르렀을 때 북한 무장남침범이 기관총으로 승객과 조종사를 위협하여 기수를 북으로 돌려 평남 순안비행장에 강제 착륙시켰다. 승객은 김진섭 국장과 미군 중령을 포함 28명이고 승무원은 3명이었다. “납북 18일만인 3월 6일 승객과 승무원이 무사히 송환됐으나 기체는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고 회고한다.

김진섭 회우는 대한언론인회 전신인 4·7구락부 창립주역이다. 3인방으로 꼽혔던 高興祥(1917~2006년 9월), 吳載白(1921년~2008년 8월) 회우는 고인이 됐다. 당시 金鎮燮 시사통신 사장이 30만원의 창립준비기금을 회사한 것이 계기가 되어 탄력이 붙었다. 김 회우는 기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KBS 홍경모 초대 사장은 100만원의 기금을 내놓으며 “방송인출신도 끼워달라”고 하여 방송인들이 동참한 계기가 됐다. 창립 발기인 20명 가운데 생존자는 김진섭, 嚴基衡, 崔永定, 閔圭鎭 4명 뿐이다. 대한언론인회의 단단한 주춧돌이다.





▲ 1979년 5월 지리산 천왕봉에서. 김문웅(좌상·전 4·7구락부 사무국장) 김진섭(중앙표지석뒤) 서재학(좌하·전 본보편집위원) 김원욱(우하·전 4·7구락부 사무국장) 씨.

“影像만 남기고 말 없이 떠나고 싶다”

“대한언론인회의 활성화와 운영에 대한 조언은 무엇인가”

“올해 선출된 조정화 회장을 중심으로 社友會 제도를 도입하고 회원을 늘리는 등 열심히 하고 있어 특별히 당부할 말은 없다”고 한다.

“남은 여생 하고 싶은 일이나 특별한 계획은 없느냐”는 마지막 질문에 “유장하게 흘러온 강물이 바다에 이르듯 影像과 같은 影像만 남기고 말 없이 떠나고 싶다”며 李白的 詩 한 수를 건넨다.

故人西辭黃鶴樓(고인서사황학루)
옛친구는 황학루에서 이별을 고하고
烟花三月下揚州(연화삼월하양주)
꽃피는 삼월에 배 타고 양주로 내려갔네
孤帆遠影碧空盡(고발원영벽공진)
외로운 돛단 배 먼 그림자 푸른 하늘로 사라지고
唯見長空天際流(유견장공천제류)
보이는 것은 아득히 하늘에 닿은 장강물 뿐이어라

“影像” 이벽은 옛 친구 孟浩然이 황학루(湖北省 武昌縣에 있는 누각)에서 양주로 떠나는 것을 보고 지은 別辭로 친구가 떠난 빈자리에 ‘보이는 것은 하늘에 닿은 長江’ 뿐이라고 읊었다. ‘푸른 하늘로 사라진’ 부인에 대한 애뜻함과 남은 자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오버랩 된다. 세월의 강물에 여생을 맡기고 담담하게 살아 가려는 원로의 초연함을 느낀다. [圖]



金 潤 德

· 본회 원로회우
· 전 평화신문 기자

나는 아홉살 연상인 김진섭 선배를 늘 형이라고 부른다. 지난 9월 20일 본회가 실시한 건강강좌를 마친 뒤 趙昌化 회장으로부터 이번 10월호 회보에 좌장이신 진섭 형님의 특별 인터뷰가 실린다는 말을

“이승만과 김구는 둘 다 건국의 아버지”

孫世一 회우 ‘이승만과 김구’ 비교 평전 출간

손세일(孫世一)회우가 새 책을 냈다. <이승만과 김구> (나남)의 제1부(1875~1919) 3권이다. 이승만(李承晩·1875~1965)과 김구(金九·1876~1949),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두 민족 지도자의 생애에 대한 이 ‘비교 평전(評傳)’의 전체 예정 분량은 차그마치 10권이다.

孫 회우는 이 책에 대해 “한마디로 나의 라이프 워크(필생의 작업)”라고 말했다.

1970년에 한 권 분량의 책을 출간한 뒤에 40년 가까이 연구를 계속해오다 2001년부터 7년 동안 <월간조선> 연재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집필했고, 지난 2월 2부 7권 분량의 집필을 마쳤다. 국내외에서 수집한 자료와 참고문헌만 수천권이다.

이 책은 본격적인 학술 연구서다. 이미 ‘한국 헌정사 연구의 선구적 성과’ ‘임정 연구의 본격적 출발점’이라는 학



이승만과 김구에 대해 설명하는 손세일 회우.

임정의 첫 임시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 마지막 주석이 김구였다. 두 사람 다 광복 이후 한국 내셔널리즘의 원천이자 국부(國父)였다는 것이다. 20~30대 시절 5년 넘은 혹독한 감옥살이를 통해 ‘정치적 사회화’ 과정을 겪었다는 점도 같다.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일반 사회

“민족주의 최고봉... 애국심은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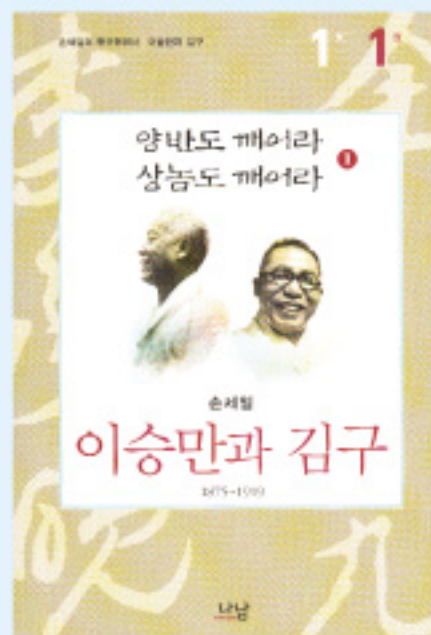
계의 평가를 받았으며, 유영익·권오영·정상인 등 수많은 학자들의 논문에 인용됐다. 이승만도 김구도 이런 방대한 분량의 전기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다.

이 책은 이승만은 ‘임종의 후손’이라는 의식 속에서, 김구는 ‘상놈 콤플렉스’ 속에서 상반되게 자라났다고 말한다. 그런 대조적인 성장 환경처럼, 한 살 터울인 이 두 사람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지내는 상징성은 너무도 다르게 각인돼 있는 게 현실이다. 마치 둘 중에 한 명을 택하는 것이 자신의 이념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과연 그런가? 孫 회우는 “그건 크게 잘못됐다”고 말한다.

라면 도저히 불가능했을 학문 습득과 저술 활동을 했고, 김구에게 감옥은 자신을 저항적 민족주의의 강철덩어리로 만들어 낸 불가마와도 같았다.

두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애국심의 소유자였으며, 자유주의와 반공주의 사상에 투철했다는 점에서도 같았다. 다만 김구의 서거 직전인 1948년의 남북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두 사람에게서는 분명히 다른 점도 있었다. 이승만에게 있었던 철저한 국제 인식과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이 김구에게는 부족했다. 반면 김구에게 있었던 관용의 정신과 스스로 대중을 대변하는 모습은 이승만에게는 아쉬운 부분



이었다.

“이승만과 김구, 두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하고 그들을 합친 내셔널리즘의 봉우리에 올라가야만 우리 나라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孫 회우는 내년 봄 2부(1919~1945)를 출간할 것이고 3부(1945~1949)는 이제 곧 집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圖]

金鎮燮형과 나

아버지 유언 실현시켜준 은공 못잊어

듣고 너무나 반가워서 “나도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지면을 배려해 달라”고 요청해 이 글을 쓰게 됐다.

사실 진섭 형님은 개인적으로 50년 전 선친의 유언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준 은인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동안 형님으로 깎듯이 모시고 있다. 나의 고향은 38선 이북인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봉구리. 북한에 속해 있던 이 지역이 1953년 휴전 때 수복지구가 된 곳이다. 입진강 북쪽 민통선 지역이어서 영농 주민들도 국방부 민사처의 출입증을 발부받아야만 그곳에서 영농활동을 할 수 있었다.

선친이 돌아가신 때는 1959년 4월 16일. 당시 동아일보 국방부 출입기자였던 진섭 형님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

는 아버지의 유언을 꼭 들어드리고 싶다고 했다. 진섭 형님은 동료 출입기자 朴重任씨(작고) 등과 함께 국방부 장관과 면담했다. “장관께서도 부모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고향인 수복지구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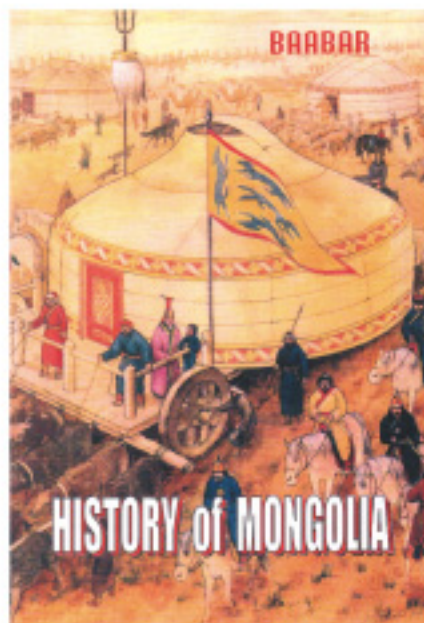
국방장관은 즉시 1군사령관과 사단장에게 지시를 내려 민원을 해결해 주었다. 그리하여 4월 18일 서울 성동구 집에서 발인할 수 있었다. 진섭 형님이 지프차로 선두를 맡아 의정부→양주군 법원리 검문소를 거쳐 ‘영, 영’ 사이렌 소리를 내는 사단 헌병차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장지가 있는 북쪽으로 달렸다. 도로 보수공사를 하던 군인들도 일

손을 멈추고 거수경례로 애도해 주었다. 너무나 고마웠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장례를 도와준 현지 군인들을 잊을 수 없다.

감악산 비포장 고갯길을 굽이굽이 넘어 입진강 검문소를 통과해 민통선인 입진강을 건넌다. 감회 가 깊었다. 연천군 백학면 노곡리에서 노제를 지내고 상여를 움직여 1.5km 떨어진 백학면 봉구리 358번지 3號에 안장하게 됐다. 그 후 1982년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합장. 봉분을 두레석으로 하고 비석 상석 망주석 등 의물(儀物)을 갖추어 묘역을 잘 관리하고 있다.

이 기회를 빌려 진섭 형님의 은혜에 거듭 감사드린다. 금체(金體) 더욱 강녕하시고 장락무극(長樂無極)하시기를 빈다. [圖]

몽골인이 직접 쓴 칭기즈칸 후에 발자취



“아는 만큼 보인다.” 이번 관훈클럽에서 몽골을 여행하기에 앞서 그 이치에 따라 여러 가지 책이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몽골, 우리가 몽고(蒙古)라고 흔히 알고있던 명칭은 중국쪽에서 편하의 뜻으로 사용해진 것 같아 이번 여행을 계기로 앞으로 사용 안하기로 했다. 몽골이라고 하거나, 영어로 Mongolia라고 부른다.

‘대학 때 라티모어(Owen Lattimore)가 쓴 일본번역 문고판 〈중국〉을 읽고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다. 라티모어는 미국의 매카시 선봉때 많은 중국전문가들과 함께 수난을 당했다. 그는 중국의 역사가 정태적(靜態的)인 역사가 아니라 북방의 여러 부족들과의 끊임없는 충돌에서 큰 변화를 계속해온 다이내믹한 역사라고 풀이했다.

신문기자 생활을 하며 일본의 국민작가 시바(司馬遼太郎)의 소설이나 수필도 여러 읽게 되었는데, 그가 오사카 외국어대학의 몽골어과 출신이라는게 색달라 관심을 끌었다. 일본은 조선을 침략한 후 잇달아 중국으로 관심을 돌려 그 징검다리로 만몽경영(滿蒙經營)을 운운하며 만주를 취하고 몽골까지 욕심을 냈다. 시바 개인의 뜻은 모르겠으나 몽골어과 라는 것은 일본의 그런 큰 흐름

書舍餘話 ⑤

몽골역사 바발 (케임브리지大 연구팀刊)



남재희

· 전 서울신문 주필
· 국회의원(4선)
· 전 노동부장관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

오래전 신문에 보니 〈로마인 이야기〉의 시오노(塩野七生)가 시바는 일본에 국적(國籍)하여 국제적 안목이 부족하다고 혹평.

시바는 메이지(明治)의 시대를 대단히 찬미하여 얼마간 국가주의 또는 국수주의적 냄새가 나기도 한다.

몽골 공부로 우선 브리태니커로 알려진 백과사전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거기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망라돼 있다.

조선일보 출판국장을 지낸 김종래씨는 몽골에 관한 책을 일곱권쯤 저술한 몽골통이며 그러한 공로로 최근에 몽골대통령 고문이 되었다. 그의 〈유목민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칭기즈칸이 대제국을 일으킬 수 있었던 능력을 경영

를 끼치는 공포의 대상으로 기억하였다. ③종교에 대한 관용. 모든 종족이나 민족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와는 대조적이다. 따지고 보면 몽골의 종교나 문화가 낮은 수준인 때문도 있었을 것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몇몇 자료를 보니 당시 군대의 편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특히 등자(鎧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말을 달리며 활을 쏘는데 있어서 등자가 좋아야 몸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김완진 교수의 〈음운과 문자〉를 보면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을 창제함에 있어서 원나라 세조 때 만든 아랍어 팔사파(八思巴) 문자를 참고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변에 있지만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이다. 그리고 짧은 기간의 우기를 빼고는 연중 건조하고 공기오염도 안되어 있다. 그러니 밤에 별들이 “치마쪽에 담고 싶을 만큼” 쏟아질 수 밖에.

귀로에 칭기즈칸 국제공항의 조그마한 책장에서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몽골인이 쓴 〈몽골역사〉를 발견하였다. 국회의원·장관을 지낸 문필가 바발(Baabar·몽골에서는 긴 이름을 간단히 줄여서 쓰기도 한다)의 몽골어 책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케임브리지 대학 산하 몽골 및 내부 아시아연구팀의 책으로 나왔는데, 몽골 학자의 책이라 친밀감을 준다. 여행 때 그 곳의 대중적 술집(대포집 등)을 들르면 인정이 느껴지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책방(한책방이면 더욱 좋고)에서도 묘한 공감대의 형성을 경험한다.

그 책의 앞머리에 이런 인용문이 있다.

“이런 장성을 건설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확실히 자랑할 만한 위대한 과거를 가졌을 것이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만리장성을 보고)

“이런 장성을 건설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사람들은 확실히 자랑할 만한 위대한 과거를 가졌을 것이다.” (책의 저자 바발)

만리장성이 있는 것은 그 남쪽과 그 북쪽의 부족·민족들이 끊임없이 길항(拮抗)했다는 이야기이다. 라티모어의 풀이와 통한다. 그 흉노·선비·돌궐·몽골·여진 등등 북방 종족·민족이 그 후 많이 쇠퇴했다. 유목에서 농경정착 사회로, 농경에서 산업사회로의 문명 발달의 결과이지만 기후변화(사막화 등)도 얼마간 관련이 있을 듯싶다.

몽골은 인구가 300만이 채 안되고 우리의 60년대를 연상케 하는 수준이지만 풍부한 지하자원에 앞으로의 희망을 걸고 있다. ■

몽골방문 귀로 공항서 어렵게 구한 冊 中國과의 관계 등 새로운 시각서 접근

능력으로 분석하고 21세기 CEO들은 선전하여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의 경제광론가 사카이(堺屋太一)는 필력이 뛰어나고 경제각료도 지냈는데, 그의 저서 〈역사에서의 발상〉의 제3장 칭기즈칸 리더십을 3가지 포인트로 압축하여 분석하고 있다. ① 신속함. 기마부대는 바람처럼 빠른 데다가 그는 정보망을 잘 구축하여 정보파악도 대단히 빨랐다. 스파이 활용에도 능했다 한다. ② 대량 보복정책. 핵무기가 개발되어 그 말이 나왔지만 칭기즈칸은 그 때 이미 그것을 실천하였다. 그 넓은 정복지의 거점 거점에 100명쯤의 몽골병력 밖에 배치할 수 없었는데 그러고도 평온이 유지되었던 것은, 몽골병을 건드렸다가는 그 사실이 정보망을 통해 신속히 연락돼 대군이 몰려와 그 일대 사람들이 몰살된다는 공포 때문이다. 러시아 등 유럽쪽 사람들은 오래도록 소

몽양 여운형 선생의 기행문이 있다는 것을 말해야겠다. 최근에 나온 이점식 교수의 역저 〈여운형-시대와 사상을 초월한 문화주의자〉의 부록으로 1936년 잡지에 기고한 〈몽고 사막 횡단기〉가 수록되었다. 몽양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원동 피압박민족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 일본 관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울란바토르까지는 열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동차로 갔다. 사막을 횡단하며 추위속에 노출돼 고생을 했는데, 그 때 늑대떼들이 겁나 피스톨을 빼고 소총을 꺼고 침낭에 들어간 이야기, 밤에 별들이 쏟아지듯해 장관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몽골 이야기에는 역시 늑대와 밤하늘의 별이 단골로 나온다.

칭기즈칸을 ‘푸른 늑대’라고도 한다. 그의 깃발에 늑대가 두 마리 그려져 있다. 수도 울란바토르만 해도 분지의 저

사진을 찾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60년간 언론인의 발자취가 담긴 특별사진전시회 〈언론, 언론인 60년(가칭)〉을 개최해, 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사건현장을 담은 보도사진은 물론 바로 언론인 여러분이 주인공인 사진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특별전에 전시할 사진을 보내 주십시오.

언론인이 찍힌 취재현장의 모습, 또는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탁주한 잔 기울이는 장면 등, 언론인의 회로애락이 담긴 사진이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간직하고 계신 소중한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사례품을 드립니다.

■ 사진 보내주실 곳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언론재단 12층 미디어진흥팀 (02-2001-7751, 7754)

■ 마감일 : 2008년 11월 10일

■ 사진을 보내주실 때는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연도, 장소, 사진 속 인물 이름, 사연 등) 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전시회 일정 : 2008년 12월 15일 ~ 12월 22일 (전시장 : 한국프레스센터)

‘한글전용’ 이 疎通 - 傳達 장애물

光化門과 崇禔門

光化門의 失政 중 하나가 〈光化門〉 현판을 한글 휘호로 바꾼 愛國표현이었다. 어려운 글자도 아닌 〈光化門〉 3자의 의미만 蒸發시켰다. 〈光天=王威/化日=太平時代〉 또는 〈光被四海-化育萬物〉의 깊은 뜻은 사라졌다. 남대문 화재 때에, 崇禔門이란 현판 글씨의 유래와 글뜻이 온겨례의 관심 초점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한글로 바꿔 쓰지는 말은 없었다. 아마 관공화 한글 현판의 전철(前轍)은 영영 없을 것이다.

90년대 이래, 신문들이 앓아 누워 ‘한겨레신문’을 뒤따랐다. 이것이 과연 新聞文化의 발전(發展)일까? 印刷 미디어는 뜻 글자를 善用함이 自己固有의 武器인 것을 忘却하면 바보 天蠃다. 깊은 의미나 抽象的 概念語를 명확 妥善히 傳達할 수 있는 무기는 漢字이다.

科學 數學의 無知者들

어떤 이는 “이제는 한글전용 성공이니, 漢字는 드디어 滅亡할 運命”이라고 호언한다. 그

런데도, 사흘이 멀다 하고 “金甲聖夫人密陽林氏 以信慈 別世 茲以告訃...”하는 漢文式 訃告廣告가 잇따른다. 舊正과 秋夕이 없어질 수 없듯이, 전통은 뿌리 깊은 것이다. 어느 大新聞 韓語스 큰 題目에 ‘저탄소...’라 했다. 요새 무연탄 野炭所가 무슨 일일까 하고 한참 곤혹 끝에야, “二酸化탄소 배출이 적은” 〈低炭素〉뜻인줄 추리했다. 어떤 말이나, 한글로만 표기하면 쉽고 아름다운 “우리



서강화

· 본회 회무
· 전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時勢가 세계경제를 뒤흔든다. 똑같은 소리 ‘市勢’와는 어떻게 다른가 알 턱이 없었다. ‘텍사스 증질유가 배럴당 120달러’라 한다. ‘증질유’가 ‘中質油/重質油’ 어느 쪽인가? ‘경질유’란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重質油’도 있음직하다. 예라 모르겠다! 그런 것은 내 알바 아니다...해서 좋은 것인가?

原子爐와 무연탄재

原子爐에서 우라늄235(5%)

追慕와 追悼의 혼동

신문·방송들은 追慕와 追悼의 분간을 모른다. 수년전에 동두천 근처 도로상에서 미군 전차에 치여서 희생된 두 여학생에 대한 애도운동행사도 계속 ‘추모운동’로 보도했다. 西海전투 전사군인의 기사도 ‘추도’라야 體面適切하겠는데, ‘추모’로 계속 되풀이되었다. 그런가 하면, 신문에 四字成句는 왜 그리 빈번히 濫用하는가? 年末年始에는 으레 대학교수들의 送年談이나 新年抱負談의 故事成語 발표가 되풀이 된다. 요즈음 北韓의 外交戰略記事 通美封鎖은 왜 한글로 안왔나요?

신문은 固有 무기인 漢字버리고 放送에 따라가

말인가? 어찌하다가, 知識人을 自處하면서 신문읽기가 이토록 苦悶스러운 세상이 되었을까? 이것이 한글전용 元祖들의 功勞 덕분인가? 그 분들의 無知가 새삼 원망스럽다. 그 분들이 역사와 租稅제도 (조/용/조)분간도 몰랐고, 수학의 代數와 對數/小數와 素數/定數와 整數 등 同音異義語가 많다는 것도 몰랐던 게다. 漢字 字數가 5만이고

배우기 힘들다는 誹謗만 하면서 그 音節數는 5백음에 불과하고, 5백음을 갖고 수십만 단어를 구분지을 수 없으니, 같은 소리 어휘가 수십개씩 겹친다는 것을 미처 짐작도 못했었다. 물리학의 ‘中心’과 ‘重心’이 소리는 같아도 전혀 판 개념임을 몰랐고, 강철판의 ‘중후판(中厚板)’을 몰랐으니, ‘重厚板’ 걱정을 했을 리 없다. 요즘 석유값

를 쫓아 쓴 나머지 95%가 金屬 우라늄238인데, 그게 中性子를 吸收하면 ‘플루토늄239’가 되고, 그것이 核分裂性이 있어서, 핵무기 제조에 應用될 개연성이 있다는 해설기사가 온통 한 면을 차지한 대특집이 있었다. 그 主題目 위에다가, 前文(leader)3행을 늘어놓았는데, 난데 없는 “무연탄 재”를 내다 버리는 가정주부의 넋두리를

言論街단신

독도 상주기자 첫파견

대구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매일신문이 국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독도에 상주기자를 파견했다.

매일신문은 독도의 현장감 있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특별취재단을 구성, 전충진(47) 기사를 상주기자로 파견하여 ‘여기는 독도... 우리 땅에 서있다’는 기사를 9월 18일자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였다.

“전 기자는 본직지를 독도로 이전하고 독도 서도(西島)에 입도해 어업인 숙소에서 유일한 독도주민 김성도(68)씨 부부와 함께 생활하며 앞으로 1년 동안 독도 관련 이야기를 전하게 된다”고 매일신문은 보도했다.

조선일보 ‘다음’ 상대소송

조선일보가 “기사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인터넷 포털 ‘다음 커뮤니케이션(다음)’을 상대로 10억 5,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다음’은 ‘뉴스 콘테츠’를 저장 보관할 수 있는 계약기간(3개월)을 초과하여 검색 등을 통해 일반에 노출함으로써 최소 9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하

고, 우선 그 일부인 10억 5,700만원을 청구 한다고 밝혔다. 다음 측은 “콘텐츠 저장 기간 문제는 포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로 조선일보가 지난 5년간 명시적으로 삭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언론사가 포털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중 최대 규모로 향후 언론사와 포털의 관계정립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연구기금 31주 행사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이사장 문창국)은 9월 9일 오후 6시30분 관훈동 신영기금 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연구기금의 발전을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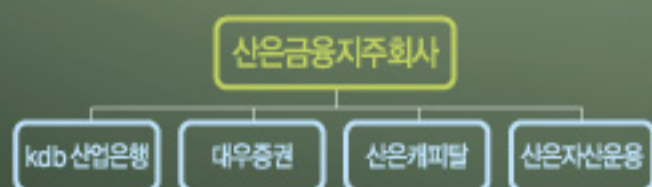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문창국 이사장, 정몽준 의원, 신재민 문화관광부차관, 조창화 대한언론인회 회장, 김형민 관훈클럽 총무를 비롯한 관훈클럽 회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본회 회우는 다음과 같다.

구월환, 김건이, 김영일, 김용구, 김윤곤, 남시욱, 남재희, 문명호, 박진서, 송효빈, 신동식, 신동철, 신성순, 유지호, 이두석, 이성춘, 이재승, 이종식, 이형균, 정재도, 정종식, 정진석, 조용중, 조천용, 홍순일

이제 우리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국가대표급**
투자은행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앞선 생각,
한국금융을 디자인하다**

산업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투자은행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www.kdb.co.kr | Ubank **kdb** 산업은행



영화평



단세포 재미와 철학적 성찰

‘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과 ‘다크 나이트’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한 편의 영화를 만나는 것은 관객으로서는 축복받은 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축복의 행운이 드물게 찾아온다. 신문이나 방송의 요란한 안내 기사를 보고 영화관을 갔다가 극장 문을 나서면서 후회와 짜증이 온 몸을 감싼다. 어떤 영화는 감각적인 재미에만 역지로 매달려 한 줌의 감동도 느낄 수 없고, 어떤 영화는 무거운 주제에 눌러서 시간이 지겨울 정도로 재미가 없는 영화도 있다.

관객이 입장료를 내고 영화관을 찾은 이유는 일상의 번잡함과 고뇌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다. 재미와 함께 인생의 단면을 느끼고 감동까지 받는다면 100분이란 시간은 소비나 낭비가 아니라 무자요 재충전이다. 한 편의 영화에서 재미와 감동을 넘어 인간의 영혼을 흔들 수 있는 철학적 메시지까지 얻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행운을 뛰어넘은 축복이다.

최근 극장가를 풍미한 두 편의 영화 ‘나쁜놈 좋은놈 이상한놈’(이하 ‘놈놈놈’)과 여섯 번째 배트맨 ‘다크 나이트’(The Dark Knight)를 봤다. 두 영화는 똑같이 대중적인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영상(영화언어) 메시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났다. 두 영화의 출발상황은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김도 신으로부터 영화는 출발한다. ‘놈놈놈’은 광활한 민주평화국을 달리는 가치를 슬기로운 마적단의 살인과 약탈로부터 시작된다. ‘다크 나이트’는 어릿광대 가면을 쓴 무장 강도 일당이 은행 지하 금고에서 현금을 강탈한 후 순식간에 일당끼리 서로 죽이는 신으로부터 출발한다.

두 영화의 오프닝 신 긴박감은 관객의 기대치를 한결 높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놈놈놈’은 대부분의 러닝 타임을 말 달리고, 총 쏘고, 사람 죽이는 신의 되풀이로 채워지만 ‘다크 나이트’는 선과 악의 혼돈과, 인간의 실존적 고민과 지적 모험을



김 화

· 본회 논설위원
· 영화 평론가

은유하고 있다. 더욱이 문화사적 철학적 성찰을 아우르는 고급 대사는 재미를 추구하는 영화의 흐름을 벗어나지 않고 관객들의 가슴에 꽂힌다. 나는 ‘다크 나이트’를 보면서 빛나는 대사에 매료되어 대사를 기억하느라고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극장에서 상영하는 극영화의 러닝 타임은 대부분 90분이다. 이 시간을 넘으면 관객들이 지루함을 느낀다는 인체공학의 통계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 두 영화는 러닝 타임이 길다. 두 편 다 140분 안팎이다. ‘놈놈놈’은 후반부에는 지루함을 느끼는데 비해 ‘다크 나이트’는 스크린 물입으로 시간 가는 줄을 의식하지 못했다. ‘놈놈놈’은 시대배경이 일제시대이지만 시대적 상황에 대한 상징이나 은유는 없고 단지 보물지도 행방을 추적하는 세 사나이의 추격전을 통한 앞치락뒤치락 단세포 재미에만 충실한 뇌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보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크 나이트’는 선과 악, 영웅과 악당, 정의와 불의, 혼돈과 질서를 칼로 무 자르듯 명쾌한 2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우물하고 암울한 현 세계에 대한 상징과 은유뿐만 아니라 철학적 성찰까지 담아 예술과 흥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블록버스터로 각광받고 있다.

‘다크 나이트’를 보고나서 나는 행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을 다시 써야 할 시대적 요구를 절감했다. 이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된 후 영화가 품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의 해석도 두 편으로 갈렸다. 한 편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다른 한 편은 대접적 비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카오스는 선과 악의 대립관계가 아니고 야누스처럼 한 얼굴인지도 모른다. 이 같은 메시지는 영화 후반부 합법적인 영웅 배기사인 검사 하비 덴트(에런 에크하트)의 두 얼굴에서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한 얼굴에서 반쪽은 화상을 입은 흉악한 얼굴이고 다른 반쪽은 정상인의 얼굴이다. 성형수술 권유를 끝내 뿌리치고 자살하는 장면의 비장미는 두고두고 가슴을 치면서 여운을 남긴다.

막가와 악의 화신, 악의 근원적인 뿌리 조커를 만난 배트맨의 존재이유는 점점 줄어진다. 악을 응징하는 정의의 행동 역시 또 다른 폭력이라는 사회적 공론이 거칠게 형성되어 가면서 배트맨은 뒤로 빠지고 검사를 전면에 내세워 조커를 응징하려한다. 경찰 역시 조커의 위협에 위축되어 배트맨의 정체를 밝혀 재물로 삼으려 한다. “죽어서 영웅이 되거나 살아서 악당이 되거나”의 대사는 초법적인 영웅 배트맨의 위험성을 암시한다. 배트맨을 전면에 내세워 응원하고 기대했던 검사가 악의 응징에 실패하자 죽어서 영웅이 되는 길을 사임하고 악당을 지원하면서 살아서 조커와 싸우는 숙명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 이런 배트맨의 결단과 행동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달콤한 인생’ 등 몇 편의 영화에서 연출력을 인정받은 김지운 감독이 흥행만을 작심하고 만든 김치웨스턴 ‘놈놈놈’은 관객동원에는 성공했지만 한국 영화 질적 발전에서는 퇴보한 영화다. 심형래가 만든 영화는 주류 감독이 아니라고 혹평도 마다 않았던 평론가들이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梧岡 張基鳳 선생을 추모함

신문인 張基鳳 선생! 선생이 유명을 달리 하시니 지난 40여년 동안 선생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온 필자로서는 만감이 교차함을 느낀다. 필자는 1965년 7월 11일 선생이 창간한 신아일보 조사부 기자로 출발해 이 신문 논설위원이 되기까지 선생으로부터 논설 수련을 특별히 받았다. 따지고 보면 선생은 필자의 논설 스승이었다. 사장실에서 하루 두 세편 씩 사실과 칼럼을 직접 쓰시던 장기봉 선생이 어느 날 필자를 불러 받아 쓰게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내가 일약 논설위원이 됐으니 선생은 바로 나의 논설 스승이 분명하고 지금까지 누가 뭐래도 내가 선생을 존경하고 따랐던 이유다.

선생을 아는 많은 언론인들은 선생을 가리켜 약간 파격적이며 독특한 성품을 지닌 기안다운 대가 있다고 말한다. 아님 게 아니라 선생은 일찍이 안동 잠씨 가문에서 태어나 만주로 출향해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기까지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독특한 기지와 투지가 번득이셨다. 선생은 또 언론계에 투신한 이래 많은 일화를 남긴 한국 현대 언론사에 보기 드문 입지전적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약관 29세에 대통령 공보비서관, 서울신문 사장을 지냈고 외무부 정보국장, 유엔대표로 일했다는 사실도 선생의 비범함을 말해주지만 해방 직후 대동신문 기자시절 반공정신이 투철했던 장기봉 기자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과 임병직 외무장관과 만난 일화라든지 선생께서 미군정 당시 러치군정장관에게 민주 입법의원 구성을 제의 먼저 제안한 일을 비롯하여 6·25 한국 전쟁 중 삼리전 요원이 되어 적진에 전단을 뿌린 일등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국가관이 남달랐던 선생의 진면목을 웅변



故 장 기 봉 선생

으로 말해준다.

선생께서 창업한 신아일보는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이 신문을 창업하여 앞세운 사시(逝是)인 ‘자유’ ‘중립’ ‘공익’의 언론관은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좌우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신문은 그 역할 만큼의 이익을 사회에 주지 못한다면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므로 언제나 국민복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한국 최초로 다색도 컬러윤전기기를 도입하고 새 사옥도 지어 웅비의 날개를 펴고자 할무렵 하루아침에 신문사를 빼앗긴 선생의 역울함을 어찌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신군부의 언론통제과정에서 선생이 보안사 수사실에서 각본에 따른 신아일보 포기 각서를 쓰기까지의 온갖 수모와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생생한 증언 등은 우리 나라 언론의 뼈아픈 수난사 바로 그것이었음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선생은 신아일보 강제 종간 이후 허망한 나날을 보내며 언론가는 빼앗긴 신문을 되찾겠다는 집념을 버리지 않았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진 선생의 가슴은 아마도 겹겹이 탄 술 겹겹이 겹겹이 아파다. 삼가 선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정 윤 종

(본회 이사·전 신아일보 논설위원)

신아일보 창간... 언론사 큰 족적

원로 언론인 장기봉 본회 회수가 지난 8월 28일 오전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경북 안동 출신인 고인은 광복 직후 언론계에 입문해 대동신문 정치부장, 평화신문·연합신문 정경부장, 서울신문 사장, 코리아 타임스 부사장 겸 편집국장, 한국일보 편집국장, 한국일보 이사, 동화통신 전무이사, 합동통신 이사 등을 역임했다. 1950년엔 이승만 대통령 공보비서관과 유

엔총회 한국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고인은 1965년 국내 다색도 인쇄의 효시가 되기도 했던 신아일보를 창간했다. 국민훈장 모란장과 세계 언론인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생선형 형상과 경제개선> <백만장자가 되려면> 등을 남겼다. 유족으로는 부인 안남득씨와 장남 학준(舊신아 대표), 학만(한국일보 경제부 차장), 딸 주미 씨 등이 있다. ■

Love your life, Love your dream



고객님이 계신 곳이 바로 대한생명의 고객센터입니다



대한생명 찾아가는 서비스

사고보험금 청구에서부터, 일반제지급 신청업무 등 혼자서 처리하기엔 너무도 복잡하고 번거로우셨죠?
이제 대한생명 전담직원이 고객님의 계신 곳 어디든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

구분	신청방법	이용시간
전화	통신판로1588-6363에 상담원에게 신청	09:00 ~ 18:00(평일)
인터넷	대한생명 홈페이지(www.koreallife.com)에 접속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클릭	24시간
F P	친밀 F P에게 신청	수시

서비스 가능업무

사 고	사고조사 (인원, 진단, 수습, 청제, 휴원, 서방 등)
제 지 급	생존지급 (본회생금급, 은퇴연금급, 해지환급금 등)
정 상 생 명	장애평가 (간접사망, 사망통지 등), 변경업무 (거주지/수익지 변경, 납입연월기간 변경 등)

한화금융네트워크
대한생명

1588-6363

9월 첫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다. 감바람이 선선한 숨을 쉬게 한다.

나는 지금 창문을 통해 강물을 바라본다. 당산동 아파트에서 강물을 바라보며 지난 시절을 되돌아 본다. 그 때 그 시절의 애환이 머리와 가슴을 적신다.

내가 퇴근해 집으로 돌아오는 코스 중 하나는 무교동 골목이다. 이 골목을 지나치려면 버릇처럼 드림통 대문집들을 이리저리 구경하느라 한참을 가다 서다 하며 둘러보곤 한다.

정상(正床)도 아닌 보이는 그대로 뜨내기 애주가들의 술자리다.

시커멓게 그을린 드림통하며 그을음 때가 가득 한 고기판 석쇠, 고깃국물 나르는 아줌마들의 귀에 익은 인사 어부들이 내 눈과 마음을 끈다. 이런 것들을 기웃거리 보노라고 앞에서 오는 사람과 맞닥뜨리기도 하고,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부딪칠 뻔도 하지만 퇴근길 무교동만 들어서면 놀상 하는 '버릇'이다. 습관적으로 발걸음이 가는 이 코스에는 낯익은 단골 대문집이 있어 어느 집부터 순례할까 잠시 망설이기도 한다.

꼭 들르는 집은 성전불고기, 부민육, 목포세발나지, 러브맥주집엔 웃고 울고 시시덕거리는 얼굴들이 자리를 꼭 메우고 있다. 실낱같은 눈썹을 끈두세우며 직장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상사 씬는 찌푸린 얼굴들은 차라리 애교스럽다. 새파란 젊은이들의 각시같은 뽀뽀한 표정을 비롯해 험상궂은 얼굴, 주름살 투성이 백발노인의 억지쓰는 능글맞은 얼굴, 또 뽕뽕한 젊은 눈을 힘껏 부라리는 얼굴 등 온갖 표정은 하루

수필 창에서 보는 강물



김 종 현

· 본회 회우
· 전 김에디터닷컴 대표

를 오하려 피곤케 한다.

사람을 대면 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굴표정이기 때문이다. 너무 너무 유쾌해 혈오스런 얼굴이 있는가 하면, 빈틈없는 얼굴에서는 앞이 삭막함마저 느껴진다.

우리 주변 이웃엔 마음과 달리 너무 걱정이 많아 손해 보는 얼굴도 있다. 경망스럽게 설치대는 체신머리 없는 얼굴도 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칸칸한 얼굴보다는 좀 빈틈하면서 너그러움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 아닐까 싶다.

아름찬 지도자보다는 어딘가 어수룩한 얼굴의 지도자가 훌륭해 보이는 이유도 그것이다. 이 참에 나폴레옹의 얼굴, 립킨의 얼굴, 히틀러의 얼굴을 상상해보며 또 우리 나라 몇몇 지도자들의 얼굴표정은 어떻게 비칠까 생각해 본다.

자기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 주는 것은 말(언어)보다 얼굴이다.

어수룩한 얼굴로 득(得)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

렇지 않은데 "생긴 것을 봐라, 그러나..." 하며 얼굴 탓으로 일축해버리는 수도 있다.

절포의 종업원도 까증까증한 것보다는 어수룩한 종업원이 더욱 고객을 끈다. 이렇게 된 것도 어수룩하게 보이는 얼굴 덕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하지만 얼굴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오는 실망이 몇 갑절 클 터이니 선불리 얼굴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건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세상에 타고난 얼굴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기왕이면 좋은 표정을 지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 게다.

최근 이사한 당산동 감바람 아파트 창가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니 스스로없이 잠상이 떠오른다. 두서없는 상념을 추스리며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활기찬 새 삶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뛰어 나가려 한다. [문]



회우동정

· 가나다순

회우 바둑모임 개최



■ 김명수 회우=회우 바둑모임을 매달 두 차례 조선헌 앞 한성기원에서 갖는다.

자주 얼굴을 보이는 분은 김진배, 박범진, 이주해 회우와 김봉익, 송진혁씨 등이다.

조우회보 편집위원장



■ 김종현 회우=조선일보 사우회가 발행하는 조선 사우회보 편집위원장을 맡았다. 조선 사우회는 9월 말까지 첫 회보를 발간할 예정이다.

녹색 성장 포럼 발족



■ 김진현(세계 평화포럼 이사장) 회우=정부가 국가발전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성장포럼'을 9월

9일 발족시켰다. 포럼에는 전문가 90여명이 참가하며, 연구와 워크숍을 통해 녹색성장의 방향을 제시한다.

양천구 제도개선위원회



■ 김호기 회우=지난 8월 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평화언론 포럼 회장에



■ 안종우 회우=지난 9월 9일 중견 단체인 평화언론포럼 회장으로 선임됐다. 안 회장은 중앙대 신방과를 졸업, 대전일보, 매일경제 기자, 중앙통신 편집부장, 연합뉴스 편집부국장, 전무국장, 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언론인회 이사과 산악회장을 맡고 있다.

조찬 강연회 개최



■ 이경남(李敬南) 회우(한국발전연구원 원장) = 9월 2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李敬南 氏

김진섭 회우 녹음기 기증

김진섭 회우가 지난 9월 10일 회보 제작을 위한 인터뷰용 최신 녹음기(20만원 상당)를 본회에 기증했다. 이 녹음기는 중량 43g 초소형으로 휴대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울대 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한국 현대사 60년에 대한 평가'를 연제로 제 161회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전쟁미술 보고서 발간



■ 이구열(한국근대미술연구소장) 회우=지난 4월 전쟁기념관의 창군 6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용역을 받은 '6·25 전쟁미술 조사연구' 연구팀의 책임자를 맡아 9월 중순 방대한 보고서를 완성, 책자로 만드는 성과를 냈다.

인촌상 언론부문 수상



■ 정진석 명예회우=인촌기념회(이사장 현승종)가 시상하는 제 22회 인촌상 언론출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8일 오후 5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시상금은 1억원.

郭址湧 회우 별세

곽지용 회우가 9월 27일 새벽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장례는 대한언론인회 장으로 치러졌다. 곽 회우는 1953년 3월 서울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그 해 4월 공군 소위로 임관 공군사관학교에서 교관으로 근무했다.

곽 회우는 1958년 9월 세계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 동화통신 정치부장, 한국기자협회장, 한국신문회관 이사, 한국신문윤리위원, 한국디자인포장센터 상무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 부인 양순옥 여사와 2남 1녀가 있다.



老年期 부부생활 즐길 수 있다 건강강좌 상황...10월엔 최면 강의

대한언론인회와 한국성과학연구소가 매월 공동 개최하는 건강강좌가 지난 달 20일 많은 회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에 있는 '이운수 비노기과'에서 열렸다.

'노년기의 변화하는 여성의 몸'에 대해 강의한 이운수 박사는 여성은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여 여러 신체증상이 나타나는 데 이 때 호르몬의 불규칙한 변화로 자율신경의 기능이 불안정하게 되어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두통, 요통, 이명, 초조, 불안, 기억력 감퇴, 우울 혹은 짜증을 내며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특히 노년기 여성은 비노생식기의 위축 증상을 가져와 질 건조증, 질 소양감, 성 고통, 성교 불쾌감, 요실금, 방광염 뿐 아니라 피부조직에도 변화를 가져와 피부가 탄력성을 잃고 건조해지며 화장이 잘 안 받고 주름살이 늘어 기미나 주근깨도 끼고 골다공증, 심장병 증세도 나타나므로 노년기 여성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이어 여성 생기능 장애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인데 신체적 원인, 정신적이거나 내적 요인, 대인관계의

갈등, 행동적 원인, 혹은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되어 기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 정서장애, 성기능이나 성의 생리학적 측면에 관한 무지에 의해 성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여성의 생기능장애는 타고난 수도 있고 또 후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며 생기능 장애의 범위가 난관과의 성생활에서 나타나는 등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날 수도 있다.

또 나이를 먹으면서 성적욕구의 저하나 분비물의 감소 등으로 성행위의 빈도 감소 및 극치감도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결론으로 갱년기 여성 특히 노년기 여성은 나이를 먹으면서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전체적으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심적으로도 여러가지 변화가 오나 그렇다고 해서 약간의 감소는 있지만 성적인 욕구는 지속되므로 남성은 여성의 신체 변화 등을 이해하고 여성을 잘 리드한다면 노년기 부부생활은 즐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월 18일 오후 3시에는 동의대 김일철 박사가 '최면'에 대해 강의한다. [문]

본 회
일
(10월)
2일=후생복지위원회
9일=편집회의
20일=건강강좌

회비 내신 회우

· 2008년분
김영대 김홍기 유지호
이남규 이석희(08년)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주소 바뀌었습니다

· 황대연=서울 은평구 진관동 12 은평뉴타운 삼림마을 711-302호

경기도와 서울시가 드리는 또 하나의 대중교통 할인 혜택

이제, 좌석(광역)버스까지 할인받자!

마침내 9월 20일, 경기도와 서울시가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1회 환승시 평균 750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수도권 통합요금제-
고유가 시대, 더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십시오.



- ◎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
- 대상: 경기 좌석형/직행좌석형버스 (), 서울 광역버스 ()
- ₩ 1회 환승시 평균 750원 절감, 연간 최대 50만원 절약

- ㎞ 좌석(광역)버스 환승시 기본요금 부과 거리는 30km
(일반버스는 10Km)이며,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씩 추가
- 기본요금: 좌석형 1,500원, 직행좌석형 1,700원

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넷 (www.gg.go.kr) 참조
교통카드 관련: (주)이비 02-577-1472, 티머니 1644-0088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서울특별시 KORAIL